

온달 · 평강의 사랑과 운명 그리고 죽음

‘광장’의 소설가 최인훈의 첫 희곡 ‘어디서 무엇이...’ 명동예술극장 개관작으로 무대 올라

“인간의 오늘은 어제의 부활이며 윤회이다. 오늘의 자신이 어제의 자신과 동일시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기억이다.”(최인훈의 <회두> 중에서)

올해로 등단 50주년을 맞은 작가 최인훈은 많은 이들에게 소설 <광장>으로 기억되는 한국의 대표적 소설가이다. 하지만 남북분단이라는 한국 특유의 상황에서 인간과 이데올로기의 문제에 천착해 온 그가 5편의 희곡을 쓴 희곡작가라는 것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 작가 스스로 “가장 자유로운 예술혼”으로 작업했노라 표현하는 최인훈의 희곡들은 유려한 문장과 일상적이지 않은 구성, 한국적 신화와 설화의 독창적인 접목 등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최인훈의 첫 희곡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는 스스로 가장 애정이 가는 작품이라 표현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6월 5일 개관축하공연 ‘맹진사댁 경사’로 연극 제작전문극장으로서의 출발을 알린 명동예술극장이 7월 10~26일 최인훈 작, 한태숙 연출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로 2009년 명동예술극장 개관작품시리즈를 시작한다.

삼국시대 온달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연극은 일반적인 서사구조를 뛰어넘는 작가 최인훈의 대본과 항상 도전적인 연출로 주목받는 연출가 한태숙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공연. 한태숙은 1970년 초연때 전설이 된 이 공연을 하도록 리듬의 음악과 현대적 터치 의상, 섬세함과 파격이 함께하는 무대로 그만의 색깔을 입혔다.

특히 이 공연은 박정자, 정동환, 서주희, 김수현이라는 배우들의 면면만으로도 무게감을 주는 작품이다. 1970년 초연과 1973년, 1975년 재공연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도 아들을 잃은 노모의 슬픔을 담담하면서도 애절하게 그린 ‘온달모’ 역의 박정자가 나이에 걸맞게 보다 깊어진 명연기를 펼친다. 2009년 이해방 연극상을 수상하며 최



사진 오른쪽부터 ‘온달모’ 역의 박정자, ‘평강’ 역의 서주희, ‘대사’ 역의 정동환, ‘온달’ 역의 김수현.

고의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정동환은 ‘대사’를 통해 열정적인 연기를 펼칠 예정이다. 고정관념 속 공주의 틀을 벗어나 특유의 개성이 담긴 ‘평강’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서주희와 2008년 대한민국 연극대상 신인상을 수상한 ‘온달’ 김수현의 만남 역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연극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러하다. 산속, 온달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어둠 속에 비치는 불빛을 찾아간다. 산 속의 외판 집에서 만난 여자와 하루밤을 지낸다. 깨어보니 꿈이다. 이튿날 바보 온달의 집에 평강공주가 나타난다. 정쟁에 떠밀려 비구니가 되기 위해 왕궁을 빠져나오는 길이다. 그녀를 인도하는 대사에게서 지나

들른 이 집이 온달의 집임을 알고 그녀는 놀란다. 산에서 돌아온 온달을 본 순간 그녀는 온달과 결혼하기로 작정한다. 세월이 흘렀다. 온달은 고구려의 유명한 장군이 돼 있다. 물론 궁중에 다시 불러들여온 공주의 남편으로서. 남편 온달이 싸움터로 나간지 한 달, 공주는 어쩔지 자꾸 불안하다. 온달의 명령이 나타난다. 죽은 자의 입에서 그녀는 진실을 듣는다. 오직 한갈래 흐름뿐이었던 온달의 마음을, 그녀는 남편의 시체가 있는 싸움터로 달려간다. 권력투쟁은 다시 불붙는다. 공주의 재차의 탈출, 사랑하는 이의 어머니를 모시고 여생을 지내려는 그녀의 계획을 운명은 허락치 않는다. 사랑은 어찌 같은데 시간은 이자를 포기하지 않는

다. 자기가 만들지 않은 운명과 싸운 총명한 여자는 사랑과 옛마당에서 죽는다.

김현 문화평론가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에 표현된 불교적 이념의 분석은 초기에 최인훈씨가 깊은 관심을 내보인 프로이트적 세계, <광장> <회색인>에서 보여준 한국정신사의 기동으로서의 불교세계와 깊이 연결돼 있다”며 “온달을 잃은 공주와 인도로 가는 배를 잃은 왕자를 통해 불교적 인과관계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공연시간은 화·목·금요일 오후 7시 30분, 수·일요일 오후 3시, 토요일 오후 3시 및 7시 30분이다(월요일은 쉬). 문의: 1644-2003

김성우 기자

‘사륙변려체’ 최초 등장 “미륵사지 사리봉안기서 나왔다” 주장

‘경서체(經書體: 일반적으로 시경·서경 등 유교경전에서 사용한 문체)’로 알려졌던 익산 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에서 출토된 금제사리봉안기에 백제 한문학 사상 최초의 ‘사륙변려체’가 등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박종환 연구관은 6월 27일 공주대 백제 문화연구소(소장 정재운)가 ‘백제불교와 왕권’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연구관은 주제발표 ‘미륵사 사리봉안기와 백제 변려문의 발전’에서 “익산미륵사지 사리봉안기는 개로왕대 조위상표문(朝魏上表文·472)에서 사략지적비(砂老智積碑·654)로 발전해 가던 백제 변려문 발달 과정의 중간 단계의 문장 형태를 보인다”고 말했다.

사리봉안기에는 “왕후 당신의 마음은 수경 같아서 법계를 황상 밝게 비추시고 몸은 금강과 같아서 허공과 나란히 불멸하시어”로 번역되는 “왕후즉신(王后即身) 심동수경(心同水鏡) 조법계이항명(照法界而恒明) 신약금강(身若金剛) 등 허공이불멸(等虛空而不滅)”의 사륙문이 존재한다.

박 연구관은 “사리봉안기에는 단 1구의 사륙문만이 있지만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며 “사리기 곳곳에서 4자 1구로 구성된 대구(對句) 표현들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변려문은 ‘대구’를 존중해 지은 문장 형식으로 사륙변체·변체문·사륙문으로 불린다. 변려문은 시기에 따라 4-4자(구)의 변려문으로부터 4-6자 변려문으로 변화했으나, 4-6자 변려문은 변려문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발달된 형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까지 대다수 전문가들은 “익산 미륵사지석탑 사리기는 경서체를 기초로 쓰여 사륙변려체도 보인다”고 평가했다.

조동섭 기자

철산 스님, 제다법 강의하며 문화센터 운영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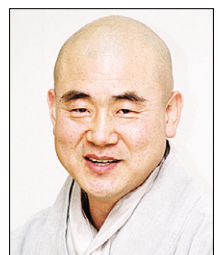
문경 대승사 금우문화재단 ‘금우문화진흥대학’ 개강

“다도와 제다 모두 심신수양의 한 방편입니다. 문화센터를 통해 시민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됩니다.”

사단법인 금우문화재단(이사장 철산, 대승사 주지)은 7월 1일 경북 문경시 재단 건물에서 금우문화진흥대학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문화교육에 들어갔다.

부처님의 골수를 뜻하는 ‘황금수’란 뜻을 가진 ‘금우(金牛)’의 명칭이 암시하듯 불교포교의 원력이 깃든 이 문화센터에서는 제다 및 도자기, 차목화, 다도, 전통음식문화, 요가, 오미자교실 등 다양

한 전통문화를 교육한다. 대승사 주지 철산 스님(사진)이 직접 제다법(製茶法)을 강의하고, 서종덕 도예가가 도자기 만드는 법을, 서정순 한국기양주협회 이사가 다도와 한국음식문화를, 황영민 강사가 요가를 각각 지도하는 문화센터에서는 오미자교실, 가요교실, 댄스스포츠 등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문화센터의 모든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수강생들에게는 소정의 교재비만 부담하도록 한 철산 스님은 문화재단의 설립 배경은 문화포교에 앞서 ‘지역사회의 화합과 단결’이라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우리 절(대승사)에서 금우요를 운영하면서부터 ‘1가구 1다기 보급’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한 가족이 모두 모여 차(茶)를 마시는 시간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대화의 시간을 가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상 생활 속에서 나타났던 부부간, 형제간, 부모 자식간, 주민들의 소원하고 불편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대화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고 서로의 심중에 쌓여 있던 불만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김성우 기자

지역사회의 화합과 단결은 자연스럽게 사찰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게 되고 불교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하지만 무료 교육이다 보니 운영비 조달이 관건.

“문화센터 1층에 지역 도예인들의 도자기와 각종 차를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강사료, 버스 운행료 등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3층의 오미자 한정식 식당도 본격적으로 영입에 들어가면 여기에서도 이익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산 스님은 강사진 구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다도(茶道)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전문 교수를 섭외해 일주일에 두 차례 교육하고 제다는 직접 나선다. 그동안 대승사에서 생산한 발효차를 비롯한 뽕잎차, 민들레차 등의 생산기술을 심신수양과 접목해 교육할 방침이다. (054)571-7767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2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성전	미움의 숲
3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4	지리산 스님들의 뜻깊은 수행이야기	찬찬 현현	불광출판사
5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월호	운주사
6	삶은 고가야다	대행	한미음선원
7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8	법륜 스님의 죽은죽실	법륜	정토
9	깊고 깊은 연꽃 가르침	해국	시유수
10	쉬고 또 쉬고	무어	새로운 사람들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02)3672-7181~5